

구조개혁 평가 ‘B’ “재정비 자세 갖출 것”

종합 점수 90점 이상 획득

개혁 평가 2회 더 실시 예정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리대학이 비교적 우수한 ‘B등급’ 반열에 들어섰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전국 298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정량·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8월 31일 결과가 발표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수업 관리 △학생 평가 △학생 학습역량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12개의 항목에서 도합 90점 이상을 받았다. 지방 거점 국립대 중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단 3곳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대학은 입학정원의 4%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우리대학은 정부로부터 CK-1 특성화사업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10%의 감축을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정한 기간(2014년~2016년)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를 제외하고 남은 일종의 ‘잉여 6% 인원 감축 자원’은 대학 자체에서 보유할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즉, 1~3주기로 나눌 수 있다. 평가주기는 △1주기=2014년~2016년(올해 실시)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 등으로 계획돼 있다.

만약 후에 진행되는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C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교육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 비율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을 시 7%의 인원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6%의 잉여 감축 자원이 있으므로 단 1%만 인원감축을 실시하면 된다.

현재 안정적인 성적을 받았으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기존 사업 지원은 지속하되 신규 사업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일반학자금도 제한된다. 더 낮은 D등급을 받았을 때,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모두 제한되며 국가장학금·학자금 역시 전면 지급이 중지된다.

기획평가과 오성진 기획전략팀장은 “몇장의 보고서로 대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은 등급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새롭게 준비하거나 재정비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원감축은 예년부터 꾸준히 많이 많았던 일이며 약 10%의 인원감축은 어느 대학이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CK-1 특성화사업에 관한 5점의 점수를 받기 위해 이미 10% 인원 감축은 돼있으므로 높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 더 이상의 감축은 피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규 기자

교수 4명 정년 퇴임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며 제자들을 양성한 변명섭(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권기린(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김범희(교육대학 체육교육전공), 손영수(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교수가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했다.

퇴임식은 지난 8월 28일 국제교류관에서 서교직원과 재학생, 퇴임교수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위를 받은 이후 1984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었다. 권기린 교수는 경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 1980년 제주대에서 교수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김범희 교수는 계명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제주대에서 교수로서 재직했다. 손영수 교수는 홍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88년부터 학교에 몸담았다.

허향진 총장은 “정년 캠퍼스를 떠나고 나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So아라 총학생회가 주최한 올해 첫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가 지난 8일 오후 1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104명이 참가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So아라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내역 평가 △학생행사보조경비 집행내역 △하반기 사업일정 등 논의가 이뤄졌다.

아라캠퍼스 최초 부총장 취임

김두철 대학원장 겸임... 총장 위임 받은 아라캠 업무 관장

학생들 총장·부총장 구분에 옥상옥 구조 문제점 염려

아라·사라캠 부총장 역할 분리돼 업무 효율성 상승 기대

아라캠퍼스 최초 부총장이 김두철(물리학과 교수) 대학원장으로 결정됐다.

이번 부총장 발령은 학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기존에 있던 사라캠퍼스(부총장 정광중 초등사회교육전공 교수)와 신설된 아라캠퍼스 양대 부총장 체제가 성립됐다.

아라캠퍼스의 부총장 제도는 2014년 대학의 조직진단 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올해 초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조회, 규정 심의, 평의회 등을 거쳐 통과됐다.

변경된 학칙 제8조의 2(부총장) 1항에 따르면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아라캠퍼스 부총장, 사라캠퍼스 부총장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과 3항에는 각 캠퍼스 부총장의 역할이 기명돼 있다. 아라캠퍼스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아라캠퍼스의 주요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사라캠퍼스 부총장은 기존의 역할 그대로 총장의 위임을 받아 사라캠퍼스의 운영과 교육과 연구활동을 맡게 된다. 또한 캠퍼스의 부총장은 각각 대학원장과 교육대학장이 겸하게 된다.

기획평가과 오성진 기획전략팀장은 “대학의 국제화 추세와 교육시장 개방, 구조개혁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한 뒤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새로 신설된 부총장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 진행에 있어 옥상옥(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부총장님은 총장님에게 위임받은 대내적인 것을 처리하게 된다”며 “때문에 이중으로 일하게 되는 옥상옥 구조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철(대학원장 겸 물리학과 교수) 부총장은 “총장님을 보좌하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역할에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28개 국립대학 중 14개교가 부총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그 중 경북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부총장 2명을 임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건 기자

공인회계사 동문 7명 합격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우리 대학 출신 동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합격자는 △졸업생=정진이(회계학과), 홍정연(회계학과), 부민식(경영학과), 허승지(경영정보학과), 이주엽(중어중문학과) △재학생=고영우(회계학과), 양두현(경영학과) 등 총 7명이다.

백승규 기자

사 령

김해건(정치외교학과 2)
취재보도부장에 임명함
전지민(메카트로닉스공학과 2)
기획부장에 임명함

김이래(경영학과 2)
김정희(국어국문학과 1)
심소연(생물산업학과 1)
이소윤(생물학과 1)

정기자에 임명함
이상 9월 1일자

제주대신문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창의사업 아이디어공모전

2015.7.30.(목)~9.21.(월)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064-780-3573)

응모주제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접수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서식 다운 및 접수

심사방법 예선 : 서류 심사
결선 : 프레젠테이션 심사 (별도공지)

응모자격 제주도내 대학(원)생,
1인 또는 2인 이상 팀 구성 참가

시상내역	구분	상금	팀수
	금상	상금 500만원 및 상패	1
	은상	상금 200만원 및 상패	1
	동상	상금 100만원 및 상패	3
	장려상	상금 50만원 및 상패	5

재정위원회 본격 구성... 예산 완벽히 감시한다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 <3> 재정위원회가 뭐예요?

기존 예산 관련 위원회 역할과 기능 통합 5년 단위로 계획안 수립 및 의견 수렴 철저

학내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 12일 신설됐다. 재정위원회는 올해 초 통과된 국립

대 회계·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이후 7월 13일 1차, 7월 30일 2차 회의가 차례로 열려 학교 재정과 관련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위원회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우선 재정에 관련된 모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한다. 동 법에 의해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전환되면 서 기성회계를 심의하던 기성회 이사회, 한 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평의회, 등록금 인상·인하 및 동결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모두 흡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와 중복되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역할은 해당 위원회 학칙에서 삭제됐다.

기존에는 총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대로 시행했지만, 시행 전에 계획한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를 한다. 이에 더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증감 등에 대한 심의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등의 지원시설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수강료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또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총장은 취임 후 주요 사업 추진·투자 계획을 포함한 '대학 운영방향과 실천 전략'을 발표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란 이러한 사항들을 재정적으로 구체화 시킨 것을 말한다. 재정위원회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의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올해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오는 11월 30일에 예정돼 있다. 고원복 재정과 경리팀장은 "재정위원회 설치 전 본부 외의 학내 기구에서 전체 예산 중 30%정도만 심의했다면 이제 완전히 100%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공정한 위원회 위한 '갑론을박'

자율성·공공성 지켜야

경영 추진력 무시못해

학교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재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만큼 위원회 구성을 놓고 학내 구성원 간의 살바싸움은 치열했다.

최종적으로 재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 7명, 일반직위원 8명으로 확정됐다. 당연직위원은 교수회 부회장을 제외하고 대학본부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로 구성됐다. 교수회 부회장은 일반직 위원 중 교수 2명 중 1명을 총장이 지명하는 조건으로 당연직위원에 포함됐다.

일반직위원은 교수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재정전문가 1명, 총동창회 추천인 1명으로 이뤄졌다.

이와 같은 구성이 되기 전에 물밑에서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만들어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대학의 발전과 총장의 경영비전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본부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교수회는 재정위원회 중 20%(3명)이하일 경우 여교수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여성 교원 2명 이하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견이 일부분 받아들여 당연직 1명을 교수회 부회장으로 하고 일반직 교수 위원 2명 중 1명을 총장이 임명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이때 교수회 부회장은 여교수회장이 맡는다. 교수 3명으로 표현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수 측이 당연직으로 한 명 배치하는 대신 본부 측과 일대일 교환한 셈이다.

총학생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초기에는 매우 혁신적인 안을 제시했다. 당연직위원 3명과 일반직위원 12명으로 구성했는데, 교수 3명, 직원 3명, 학생 5명, 직원 및 교수의 추천 2명, 공동추천 2명으로 공평한 구조였다. 당시는 허 총장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불어진 시기였다.

이후 지난 6월 17일 당연직 6명, 일반직 9명으로 최종안과 1명만 변동이 있는 안을 제시했다. 총학의 제출 의견 안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을 6명하는 대신 일반직 위원 중 한 명을 학부모를 임명한다. 학부모 위원은 총동창회가 추천하고 교수, 직원,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학의 의견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추후 타 대학 사례를 보고 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8월 20일 '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재정회계법에 일반직 위원 과반수 규정이나 교수, 직원, 학생 위원의 최소 인원을 규정한 취지는 국립대학 재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원일관(영어영문 4) 총학생회장은 "공정성을 우선으로 이상적인 구조로 구성하려했지만 투쟁보다 협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안가는 범위에서 권익을 얻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씨 마른 기숙사, 은밀하게 사고 팔린다

익명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여자기숙사 살고 있는데 2학기 때 자취하고싶어요ㅋㅋㅋ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중 여직이랑 바꾸실분 계신가요? 댓글남겨주시면 메세지드릴게요~ㅋㅋㅋ

기숙사 신청하신분중에 혹시 파실분있으면 좋아요나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웃돈이 필요하더라도 기숙사에 들어가고싶어요

2학기때 여자기숙사랑 자취방바꾸실분구합니다!!!! (6개월계약)총135만원/보증30입니당. 위치는후문이에요! 궁금한점있으신분은 댓글달아주세요!!!!!!!!!!!!!! 익명부탁드려요!

각사사시는분들중에서 자취하고싶은신분!! 중앙여고 근처에서 자취하실분 구해요ㅠㅠ 보증금 200 월세40입니다 댓글남겨주세요!!

2학기 개강 전, 페이스북 페이지 '제주대 대신 알려드립니다'에 게시된 실제 기숙사 매매 거래글들.

SNS에서 먼저 협의 후, 돈 주고 명의 빌려 입주

“자취는 금전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장모(21)군은 2학기 기숙사 모집에서 떨어졌다. 한 학기동안 지낼 곳을 구하기 위해 우리대학과 관련된 홈페이지와 SNS를 찾아보던 중 장모군은 독특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은 기숙사를 사고 판다는 내용이었다. 중고 상품을 매매한다는 글은 봤어도 기숙사를 거래한다 것은 전혀 생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방을 거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학생들은 먼저 서로 게시글로 접촉한 뒤 연락처를 교환한다. 두 학생의 거래의사가 결정되면 구매자는 임주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한다. 이후 직접 만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등을 통해 거래를 진행한다. 판매자는 대가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다. 이러한 상황은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되풀이된다.

'기숙사 매매'에 관한 글은 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제주대학교 대신 전해드려요' 등에서 심

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오소범(인문홍보학과 2)학생은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자취를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숙사에 떨어진 학생들이 이런 시도라도 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생활관 강병근 행정실장은 “기숙사는 공공시설이므로 매매의 물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동침’(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관 측은 본인 명의로 입주하지 않은 학생 적발 시 퇴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이래 기자

특별기고

김창인 회장의 삶과 철학



허형진 총장

제주대학교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김창인 회장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창인 회장님은 그의 잠언집에 명에서 “흔은 귀중한 때에 울바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한다”고 쓰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창인 회장님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어떤 감정이나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료한 그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나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토대와 기반을 이해하는 것이 김창인 회장님을 이해하는 첩경일 것입니다.

김창인 회장님은 1929년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를 마친 뒤 1946년 열여섯이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으로 성공한 재일제주인입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의 여는 제주의 어린 소년들처럼,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부모를 도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성실한 소년이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인미답의 개혁심에 불타다”는 그의 글처럼, 과거와 현재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개혁하려는 독창성과 독립심에 불타던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정신과 자세가 그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도 과감하게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차별을 견디고 성공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인 회장님은 지난 2008년부터 우리 대학교와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214억여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경제지상주의의 세계 각국과 한국사회에도 급진·권력중심의 물질주의에 기인하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진심을 최우선하는 성실주의를 자각해 공평무사심·봉사심·공존공영심을 가짐으로써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존엄한 감사의 진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대학교에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지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인 회장님께서 우리 대학교에 쾌척해 주신 발전기금은 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바른 생활의 가치와 인생관을 갖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으로 문화교류관(박물관 포함) 신축,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동 건립 등으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였고, 지난 2013년에는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실천철학에 대한 학술적 가치 규명과 후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철학을 널리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일본제주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연구사업과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및 재일제주인센터 운영기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김창인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창인 회장님은 “김창인 실천철학”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새겨 따를 만한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대학교의 젊은 학생들 모두가 이런 김창인 회장님의 실천철학을 본받아 각자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도 굴하지 않고 진실일로로 매진하는 수목들처럼, 강인한 인내력으로 실천하는 삶은 분명고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5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35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5년 11월 20일(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2월 2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은 진실을 담아내고 정론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예비 언론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제주대신문에서 불태우십시오.

제63기 수습기자 모집

- 입사지원서 접수
1) 대상: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2) 기간: 2015년 8월18일(화)~9월23일(수) 오후 6시까지
3)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주대신문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
- 전형방법
1) 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2)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혜택
1)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2) 현직 기자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3)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 통한 첨단 편집 교육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5) 취재수당 및 원고료 수시 지급
- 문의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백승규 편집국장(010-9785-5221)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장애학생 위한 직원 ‘0명’ 배치

기획취재 허울 뿐인 사랑의 학교 <1> 상주직원 도대체 어디에

5년 전, 장애센터 전담직원 사라져… 인력난 심각 “적극적인 대응과 장애우 대한 관심·노력 지속돼야”

2001년 우리 대학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로부터 ‘사랑의 학교’로 선정됐다. 당시 우리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전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전국 368개 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실태 평가에서 제주대는 2008년 최우수, 2011년 최우수, 2014년 우수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제주대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인력부족과 센터의 위치 등의 문제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 3회에 걸친 기획취재를 통해 제주대의

장애학생 실태를 진단한다.

현재 제주대 장애지원센터는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3층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접근성도 좋지 않다.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등 대부분의 지역 거점국립대학교에는 장애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다. 장애학생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장애지원센터가 생긴 2008년 9월 이후 2009년 12월까지상주직원이 근무했다. 그 이후부터 학생복지과 직원이 장애지원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제주대신문은 본지 933호(‘주인없는 장애지원센터, 소외된 장애학생. 2015년 3월 18일자)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22일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에 대한 채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총장님이 지난 7월 학교를 방문한 인사혁신처장에게 인력 채용문제에 대해 건의했다”며 “인사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인사채용이 되지 않을시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자체채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대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일하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학교측은 인력문제를 교육부에 올렸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장애지원센터의 운영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아무도 몰랐다… 유령 제휴업체 성황

학생회와 제휴맺은 일부 업체 정확한 정보 제공 부족 학생들, “정보 전달 원활하려면 학생회 직접 나서야”

9월 4일 오후 1시 시청 카페. 내تا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카페는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메뉴에 적힌 가격을 보고 알맞게 계산한다.

그러나 제주대 학생이라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문대학 소속 A 학생은 “이 카페를 자주 오는데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다”며 “지금까지 낸 돈이 손해라고 생각돼 억울했다”고 말했다. 왜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SO아라 총학생회(회장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와 소공녀 총여학생회(회장 홍은혜 전자공학과 3)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업체는 카페, 옷가게, 통신사 등 다양한 곳에 있다. 총학생회는 약 28개, 총여학생회는 약 20개의 제휴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제휴업체의 정보는 학교게시물, 페이스북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물을 본 학생들은 업체명이 생소하고 장소도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운선(영어영문학과 1)씨는 “학생회에서 제휴업체의 홍보가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총여학생회 홍은혜 회장은 “소공녀 화장실 통신문은 제휴업체의 설명을 모두 게시하기 부족하고 제휴업체의 정보전달이 주목적이 아니다”며 “문의를 하면 장소와 할인혜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제휴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아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휴를 맺은 가게에 학생회가 홍보스티커를 직접 수령해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제휴를 맺은 중앙로 인근 S업체(옷가게)에는 어디에도 홍보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에 총여학생회 홍은혜 회장은 “상점을 직접 한국석 방문해 홍보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잘못된 이동경로 문제를 파악했으니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소연 기자



SO아라 총학생회·소공녀 총여학생회와 제휴를 맺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시청 인근 ‘웨일리 케익하우스’.

우리 대학은 지금 새학기 맞이 공사 중

정문 외 9곳에서 환경개선 및 도장공사 진행… 9월 마무리 늦어지는 공사 학생들 불만, 시설과 사과와 양해 전해

학생들의 편의 증진과 교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가 우리 대학 곳곳서 진행 중이다.

정문과 사범대학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 본관·사과대·원자력연구소·평생교육원·법정원·학생회관·외교원·사범대 1.2호관에서 8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정문 버스정류장에는 비가림막이 설치되며 사범대학에는 물고임 방지,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본관 외 8곳은 외벽도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원래 개강 전날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완료일이 각각 이달 22일, 24일로 늦춰졌다.

개강 후에도 공사가 이어지자 많은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수현(생물학과 1) 학생은 “정문 인근 버스승강장 주변의 인도가 드러나 도로 쪽으로 다녀야 했다”며 “또 본관 쪽 출입



사범대학 2호관 근처에서 환경개선공사의 일환으로 하난인 쓰레기 임시저장소 건설이 실시되고 있다.



“Cheer up!” 외국어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사회과학대학 잔디밭에서 Ultimate frisbee(엘티밋 프리스비)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은 원반던지기의 일종으로 경기장 한편에서 반대쪽으로 원반을 이동시키면서 진행된다. 백승규 기자

‘레드휘슬’로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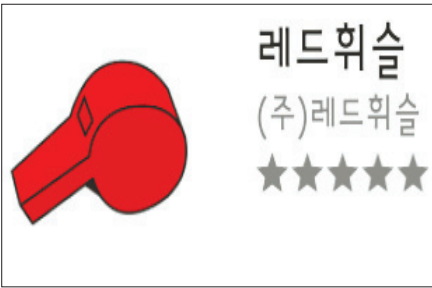
깨끗한 대학 위해 본격 도입

신분노출 전혀 없어 익명 보장

교내 구성원의 부패 방지를 위한 ‘JNU 레드휘슬’ 제도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청탁, 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자는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레드휘슬’을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레드휘슬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2016년 4월 경까지 레드휘슬 측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우리대학은 2년마다 실시하던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에는 35개 대학 중 31위, 2014년에는 32위로 전국 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금년부터는 청렴도 평가 정책의 변경으로 매년마다 발표된다.

총무과 김민규 실무관은 “8월 1일부터 시행된 레드휘슬제도는 우리 교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청렴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업 개선 신문고 운영 △허위과장광고 신고 센터 운영 △부패관련교직원 의 행정 내부망을 통한 이름·부서·위반 내용 공개 등 진행하고 있다. 김이래 기자

전국지자체, 통계로 보다

양영철 교수 신간

양영철(행정학과) 교수는 4년에 걸쳐 전국을 직접 발품을 팔아 지역통계자료들을 분석해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를 발간했다.



이 책의 지표는 통계청 e-지방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았다. 저자는 자료의 신뢰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우선 순위에 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방대한 양의 논문을 뒤지고 전국으로 직접 뛰었다. 또한 이 책은 인구·소득·고용 등 포괄적인 주제에서 인구의 변화·자동차 등록대수 등 심층적으로 분석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양영철 교수는 머리말을 통해 “정리되지 않는 최근의 통계를 직접 개선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백승규 기자

권하고 싶은 책

어려운 형법, 쉽게 가르치는 ‘범’으로 소개하다



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저자 : PMG법률연구소
출판사 : 박문각

대학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법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다보니 아무래도 교양서적보다는 관련 전공서적을 많이 읽게 된다. 형법 관련 전공서적들은 전공자가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용어들과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법 관련 학과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형법의 내용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은 우리가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살든 해외에 가서 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을 지켜야 할 중요한 법률이다.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형법을 위반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사형, 징역, 벌금 등 중한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형법을 대학에 개설된 법학수업 시간 이외에는 배울 기회가 없다보니 정작 형법을 지켜야 할 국민들은 형법의 내용을 몰라서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형법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는 형법 관련 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이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실제 발생한 사건들의 사건개요를 한 쪽 면에 만화로 구성을 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그와 관련한 형법규정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실어 놓음으로써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에는 총 150개의 실제 사건이 만화로 구성되어 실려 있는데, 150개의 사건 모두가 한쪽 면은 만화로 된 사건구성, 다른 한쪽 면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각각 한 쪽씩을 넘지 않게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형법은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형법총칙 처음부터 형법각칙 끝까지 관련 실제 사건을 일반 형법교과서의 목차 순서대로 구성해 놓았다.

하루에 하나의 사건을 읽어보는 것으로 5개월 동안 천천히 읽다보면 형법총칙부터 형법각칙까지 이르는 형법의 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 실려 있는 몇 개의 사건을 소개하면, 「사람의 시기」에서는 분만 중인 태아를 죽게 한 조산사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상해의 개념」에서는 상대방을 때리고 협박하여 실신시킨 사람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형법상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별되는 범죄로 형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개념」에서는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하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재물의 개념」에서는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하고 국제전화 요금으로 수십만 원을 나오게 한 사람의 행위가 절도죄가 되는지, 사기죄가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절도죄의 객체와 사기죄의 행위수단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150개의 사건들은 이상 소개한 4개의 사건과 같은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형법의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답을 알아내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미미리 형법지식을 습득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형법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형법의 대략적 내용을 만화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접어든 요즘 이 책을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김경락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독립운동가와 친일, 두 얼굴의 사나이 홍양명

◇명망있는 집안과 출생

그는 일평생을 글에 죽고 글에 사는 삶을 살았다. 1896년 1월 11일 전라남도 제주시 삼도리 884번지에서 태어났다(일부 자료에는 1905년 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어난 년도보다 늦게 호적을 등록하던 당시 풍조를 보면 1896년이 신빙성이 있다). 본명은 홍순기(洪壽起)다.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집안은 꽤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조부 홍재진(洪在晋)과 종조부 홍재심(洪在深)은 모두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현재 서귀포 표선면에 해당하는 정의현(旌義縣)에서 현감을 지냈다. 부친 홍종인(洪鍾彦)과 숙부 홍종률(洪鍾律)은 당시 꽤 알려진 문인(文人)이었다. 숙부 홍종률은 면암 최익현 선생 아래에서 배워 문명(文名)이 높았다. 후에 조선일보, 만선일보 등지에서 언론인 생활을 한 것은 선조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촌 홍순일(洪淳日)도 제주도에서 항일 운동을 했다.

◇김성숙, 인생의 방아쇠

어린 시절 일찍이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학창생활을 보냈다. 재학 중에 김성숙(金成淑)이라는 사람을만나는 데 그는 홍양명의 생을 바꿨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영향을 줬다.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 1학년 재학 당시 3.1운동이 일어날 때 같은 학교 4학년이고 동향(대정 가파도) 출신 김성숙



김성숙(金成淑) 1896 ~ 1979

의 투쟁하는 모습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김성숙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3.1운동 다음 날 3월 2일 일경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홍양명이 하숙 생활하던 오경수 맥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성숙과 홍양명은 함께 하숙하게 됐고 그것이 그 둘의 첫 만남이었다. 이 홍양명과 김성숙의 인연은 홍양명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기서 김성숙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김성숙은 1896년 출생의 독립운동가이고 진보당 후보로 남제주군에서 제5대 민의원(현 국회의원)을 지냈다.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3.1 운동 때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일경의 시야를 피해다녔음에(맞춤법) 불구하고 운동이 일어나고 머지 않은 3월 5일에 남대문 근처에서 체포된다. 당시 일본 판사가 김성숙을 신문한 일부를 살펴보자. 판사가 “독립을 희망하는 이유는?”하고 물었다. 그러

자 김성숙은 “학교 제도가 불완전한 것, 그리고 한일간에 민족적 차별이 있는 것과 지금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니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판사가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독립의 호기가 오면 또 할 작정이다”라고 호쾌히 답하였다. 그 후 체포당하여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법에서 재판 을 받았으나, 물증이 잡히지 않아 증거부족으로 동년 8월 13일 면소·방면되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고향 가파도로 돌아가 신유의숙을 개설해 계몽운동을 하다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다니면서 제일본조선유학생회 회장으로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 후에 1929년 홍양명도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귀국하여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할 때 늘 일제 당국의 감시와 미행을 당했다.

광복 후에는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초기에는 중도 우파의 김구식의 노선에 동조하였으나 나중에는 좌파로 노선을 옮겼다. 1955년 분단 초기의 대표적 좌파였던 조봉암(曹奉奭) 선생을 포함한 여러 인사와 진보당 창당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계로 들어와, 반 이승만 노선을 분명히 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전진한(錢鎭漢)과 함께 한국사회당을 창당해 남제주군에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듬해 1월 20일 사회대중당 준비위원들과 사회혁신당을 통합해 중도 좌파 혁신계 연합인 통일사회당을 창당 계획했다. 하지만 5.16 쿠데타로 구속되고 정당은 해체됐다. 그 다음 해 12월에 통일사회당 임원 13인과 함께 기소되어 1962년 2월 11일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후에 대중당과 합체해 정치 노선을 이어갔지만 군소정당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1976년 사망했다. 1983년에 독립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정리하자면 김성숙과 홍양명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을 다녔다. 학창시절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였다. ◇사회·공산주의에 흠뻑 빠진 청년 시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주로 돌아온 홍양명은 1921년 제주도 최초 항일 학생 단체 ‘반역자구락부’의 창립 멤버로 함께 했다. 이때 사촌 홍순일도 같이 가담한다. 이

단체는 1925년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신인회’로 바뀌어 활동했다. 홍양명은 1925년 1월 서울청년회집행위원으로 선출됐고, 3월 서울청년회가 주최한 코뮌기념강연회에서 ‘파리일규(一揆)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4월 서울청년회 계열인 조선사회주의자동맹 상무위원을 맡아 선전 부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같은 해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모스크바에서 일시 망명 생활을 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주오(中央)중학을 중퇴하고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진학한다. 1927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노동농민당 주최의 강연회에서 조선청년동맹 대표로 강연했다. 5월 신간회 도쿄지회에서 간사를 맡았고, 7월엔 신간회 도쿄지회 기관지 <신간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또 유학생 문예단체 ‘제3전선사(第三戰線社)’를 조직하고 9월에 국내에서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RF, 일명 카프)’에 참여하고 도쿄지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같은 해 21월 정치 노선이 카프와 대립된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이듬 해 1월 재동경조선청년동맹에서도 제명된다.

이 때 ‘제3전선사’와 ‘카프’ 활동을 같이 하고 친했다 사람이 있었는데 동향 신인회 출신 고경률(高景欽)이다. 그는 후에 좌파 계열 운동가 여운형(呂運亨) 선생의 측근으로 일했고 1946년에는 여운형의 특사로 김일성과 회담도 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 선생과 차를 타고 이동하다 여운형 선생이 피살당하자 당시 백의사와 같은 극우파의 테러 위협을 느껴 그 길로 월북한다. 후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후보위원으로 서열 45위까지 오르나 1963년 반대파에 의해 숙청당한다.

다시 홍양명으로 돌아와, 그는 1928년 4월 이른바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도쿄에서 검거된다.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은 1928년 3월에서 7월 사이 일제에 의해 170명 차금봉·김재명 등이 고문치사당하고, 170명의 구속·검거로 사실상 조선공산당 조직이 와해된 사건이다. 홍양명은 신의주로 이동해 신의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30년 5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했다. 당시 제주에 사회주의 중심의 항일 운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전창원 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제와 계급사회 구조로 억압받던 민중과 지식인들이 공동대배, 공동생산으로 운영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외치는 사회주의에 심취할 수 밖에 없었

광복70년in제주 <1>홍양명

홍양명 (洪陽明)

- > 1896년 1월 11일 ~ ?(미상)
- > 전라남도 제주시 삼도리 883번지 출생
- >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 졸업
- > 사회주의 활동가
- > 조선일보, 만선일보, 매일신보 기자 활동
- > 친일 단체 간부 만주국 협화회,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등



다”며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1차 세계 대전 전후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사상의 흐름이었다”고 말한다.

◇친일 활동, 사회주의를 위한 독립 혹은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

비록 사회주의였지만 나름 독립운동을 한 그가 왜 ‘친일인명사전’에 찍히니 실려 있을까. 갑작 복역 이후 그는 1931년 3월부터 <조선일보> 상하이특파원으로 처음 활동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1937년까지 편집부 기자, 외보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932년 8월에는 조선문필가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위원을 지냈다.

1938년 초 그는 만주국 수도 신징(新京)에 있던 <만선일보> 정치경제부장으로 직장을 옮긴다. 이 움직임이 그의 적극적 친일 행적의 시작이었다.

우선 만주국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세운 괴뢰국이다. <만선일보>는 1937년 만주국 내의 2대 한글신문인 <만몽일보>와 <간도일보>를 통합하여 창간한 친일 어용(御用)신문이다.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만주국 각국어념인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재만 조선인을 상대로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

또 그는 여러 친일 단체의 간부로 참여해 항일 운동 단체를 공격·교화하고 일제 찬양, 일군(日軍)독려 등 다양한 친일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1940년대에는 일제의 간도특설대에 10만원을 성금하기도 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부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가업인 단체를 열거해보겠다. 독립운동가들을 와해시키고 밀정을 양성하는 전시동원조직이고 일본 관동군을 지원하는 ‘만주국 협화회’, 이 곳의 신징 분회인 수도계림분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주로 친일 고위 관료와 친일 유지들이 주로 활동했다. 또 항일유격대를 귀순·투항시키는 특공대를 후원하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이 2곳이 가장 대표적인 만주의 친일 단체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제에 대한 찬양은 노골적이었다. 1941년 8월 <만선일보> 편진국장을 그만두고 <매일신보>로 전근했다. 1942년 3월 1일자 <매일신보>에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해 기고한 <북방방위의 철벽>을 살펴보자(위 사진)

그는 수백만의 중국인, 조선인을 학살하게 되는 만주사변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구주(歐州)와 동아(東亞)의 불합리한 현상타파운동의 대대동”이라 규정하며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을 한걸음도 동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방파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평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열렬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공산주의를 추창했던 과거를 보면 어이러니한 일이다.

광복 후에도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문필협회에서 위원을 지내고, 과도정부아래서 공보부 정치분석과장으로 근무했다. 또 서울중앙방송국 국장에 임명됐다. 1949년 반민특위에서 반민족행위자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다. 후에 6.25전쟁 직후 납북되어 소식이 끊겼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선 항일 후 친일 시’ 친일의 경증을 따져 판단한다고 명시돼있다. 홍양명의 경우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 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미화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친일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에 ‘홍양명’을 검색하면 어느 곳에도 친일의 ‘ㅈ’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역사 정보를 비롯한 제주역사물 쓴 책에서는 아직도 ‘독립운동가, 언론



홍양명이 <매일신보> 1942년 3월 1일자에 <북방방위의 철벽>의 제목으로 일제 찬양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인’이라고만 적혀있다. 그의 변절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가 일제를 찬양하고 친일 행위를 한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뀔 수 없지만 꾸준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사실과 역사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전진민 기자 출처-친일인명사전, 20세기 제주인명사전, 한국민족통화대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동정하지 마세요. 아씨가 뭐 어대서? 우리 대학생 생활 집중 탐구#1 관계편

‘다른 학생들의 하루 생활은 어떨까?’,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은 아닐까?’ 특별한 것만 같았던 대학 생활의 실제와 학생들의 일상을 담는다. 대다수 학생들의 뽀(Burn)한 일상을 엿보자.

〈편집자주〉

“# ‘뽀뽀’ 하는 말이 역시 대학 친구들은 예전 친구들만큼 친하지 않다는 거였다. 솔직히 어릴 때 친구들처럼 편하진 않다. 그래도 난 대학친구라는 선을 긋지 않았는데 괜히 실망만 하게 된다. 대학친배들도 그렇다. 너무 사람을 가린다. 애는 어떤 애고 재는 어떤 애고..”

“# ‘뽀’ 그대로 같이 밥 먹고 수업 듣는 그냥 친구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는 것 같고 과 생활, 동아리 생활을 하지 않다보니 친한 선배도 없는 것 같아요. 2학년인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은데 그냥 학과 공부와 자기 계발에만 신경 써야 할까요?”

이 중에는 분명 자기의 모습과 닮은 모습의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느 한 부분 부분에서 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학생들은 모두 대학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회의감을 갖는 모습을 보인다. 관계에 대한 고민, 이것은 위의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대다수가 안고 있는 문제다. 모두들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지만 우리가 마주한 대학 생활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서로 다른 곳에서 모인 새로운 사람들과 대학이라는 이름의 낯선 환경에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어색하기 만한 생활. 자는 시간을 제하고선 온종일 같이 있던 이전 친구들과는 달리 대학 입학과 동시에 갑자기 주어진 엄청난 자유 시간. 달라진 생활패턴에 혼란을 겪으며 일종의 성장통을 만나게 된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 아니니 말이다. 같은 학과 또는 학부라는 소속의식이 있지만 집단의 응집력이나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특히 소속 인원이 많은 학과나 학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학생 개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외부활동으로

“대학에서는 진정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다니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을 돌려 학교 밖에서 맺은 대인관계에 더 치중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풍요 속의 빈곤

“#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데 밥 한 끼 편하게 먹거나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 함께 놀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NS상의 친구는 늘어가지만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어요.”

분명 지인들은 늘어가기에 쓸쓸한 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허전하고 고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일종의 ‘군중 속의 고독’, 타인에게 둘러싸여 살아감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교성과 달리 내면의 고립감과 불안으로 외로움에 빠지는 것이다. 이전의 생활보다 대학에 들어와서 ‘카카오톡’ 혹은 ‘페이스북’ 상의 친구 수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보단 덜 외롭지는 않다. ‘가벼운’ 인간관계, 인맥을 위한 ‘넓지만 얇은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 주된 원인으로 자목되고 있다. 서로 간의 ‘깊은’ 관계가 이

전보단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현상이다.

◇캠퍼스 안의 ‘혼밥족’

너무나도 달라진 주변의 환경, 그 안에 놓여진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혼밥족을 위한 밥 약속 앱이 등장했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혼밥 인증’이라는 독특한 문화마저 형성됐다.

지나해 한 구인구직 포털사이트가 대학생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하루 1끼 이상을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이고 있는 혼밥족의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 SNS상에선 ‘혼밥 단계’ 까지 나오고 있는 상

황이다. △편의점(1단계) △푸드코트(2단계) △분식집(3단계) △패스트푸드점(4단계) △중국집(5단계) △일식집(6단계) △고기집(7단계) △술집(8단계) △패밀리리스토랑 뷔페(9단계) 등이다. 단계가 높은 곳에서 혼자 밥을 먹을수록 ‘혼밥 고수’로 불린다.

최근엔 혼밥을 통해 시간, 금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아웃사이더”, ‘자발적’ 아싸

이런 추세와 더불어 관계에 대한 고민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가 또 다른 문화로 떠올랐다.

대학생 A씨는 공강(강의가 없는 시간) 때 학생 식당에 들렀다. 식탁에

앉아 다음 시간 강의 자료를 살펴보며 혼자 밥을 먹었다. A씨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혼자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뿐더러 아끼고 돈으로 스낵까지 쌓을 수 있다”며 “시간·돈·스낵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웃사이더는 학과 생활에 참여를 안 하거나 학교에 적응을 못해 무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길 선택하는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늘어나고 있다.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직한 자발적 아웃사이더는 취업, 학점 등을 위해 주변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끊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보단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끈끈한 관계를 맺진 않지만 우리들 나름대로의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도 다양한 대학생, 대학 생활 모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자칭하는 학생들이 외쳤다.

대다수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어려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이상 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끝이 없을 것이다.

부찬우 기자



담론通

담론통지기 <3> 윤윤택 철학과 교수

◇철학적으로 본 환경과 환경보호는 무엇인가?

환경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environment, 한자로 ‘두를 환’ 자를 써 환경(環境)이다. 모두 주위를 둘러싼다는 의미이다. 그럼 무엇을 둘러치는 거냐하면, 인간을 둘러친다는 겁니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에 다분히 인간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환경보호’라 하면 대체로 인간에게 어떻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죠. 물론 인간이 아니라 개구리를 위한 환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환경보호’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환경이라는 말 대신 생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태계는 영어로 ecosystem입니다. 이 단어의 접두사 eco-의 어원은 oikos라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oikos는 집,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생태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또 물, 공기, 바위와 같은 무생물까지도 그 요소들이 하나의 집을 이루 아우르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에서는 서로 다른 생명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환경보호는 무엇인가?

환경보호라는 말보다 환경보전이나 환경보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전과 보존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분히 다릅니다. 보전(保全, preservation)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자는 겁니다. 보존(保存, conservation)은 인간의 관점에서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으로 동의어로 ‘보호관리’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전이 보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 그렇죠. 보전의 관점에서는 자연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맡겨두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연을 좀 더 인간에 이롭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호관리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꽃자왈 같이 인간에 이롭던 그렇지 않은 다양한 생물종들이 혼재된 상태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보전이라 하고, 사람이 황폐화된 땅에 숲을 조성하는 인공림은 보호관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보호와 파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보호와 파괴는 분명히 구분이 되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호관리를 넘어서 개발을 하는 것은 파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발의 문자적 의미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자왈을 개발한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죠. 뿔감을 얻거나, 약초와 같은 야

생식물을 채취하고, 동물을 방목했죠. 그렇지는 꽃자왈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뿔감을 때지 않아도 되고, 야생식물도 캐지 않고, 동물도 키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치가 낮게 평가됐죠. 그래서 개발론자들은 숲에서 버섯이나 약초를 캐면 얼마나 캐겠느냐, 골프장을 만들고 관광시설, 레저단지를 조성해야 더 많은 가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라 하는 것이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기능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면 알수록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어 꽃자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하수 함양기능입니다.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꽃자왈이랑 오름이에요. 비가 오면 그 빗물 100%가까이 지하수로 흡수됩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땅은 비가 오면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그리고 산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로 모여 넘치잖아요. 그러면 빗물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하천으로 모여 결국 바다로 흘러가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생이 상당히 다양한 지역이예요. 남방계식물과 북방계식물의 서식지가 만나는 지점이 제주도예요. 그 식물들이 우거진 곳이 꽃자왈이예요. 그만큼 식물들이 다양하면 동물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허파노릇을 하는 곳이 꽃자왈입니다. 그 동안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그 가치들을 다 모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엄청난 거죠.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주대가 1평방킬로미터(1km), 30만평이예요 이게 골프장 하나 크기인데. 1평방킬로미터당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나 봤을 때 꽃자왈 같은 숲은 연간 17억원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것이 있겠죠. 1평방킬로미터의 감귤 밭이 있을 때 얻는 연간 순이익이 4억5000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숲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높는데 왜 개발하려는 걸까요?

환경의 주인은 누구냐? 모두입니다. 이게 바로 환경이 어려운 점이에요. 제주의 대부분의 땅은 사유화됐고 심지어 오름이나 꽃자왈도 개인이 소유하는 곳이 많아요. 환경은 공유하는 것이고 혼자만의 것이 아니예요. 내가 숲을 1평방킬로미터를 가지고 있다고했을 때 그 17억원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적 가치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다 하면 모두가 자기 맘껏 이용해도 된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환경 철학분야에서 가렛 하딘(Garrett

“효율성과 합리성의 기준을 속도 중심에서 더 적은 엔트로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환경과 경제 성장은 꼭 대립하진 않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로 지속가능한 성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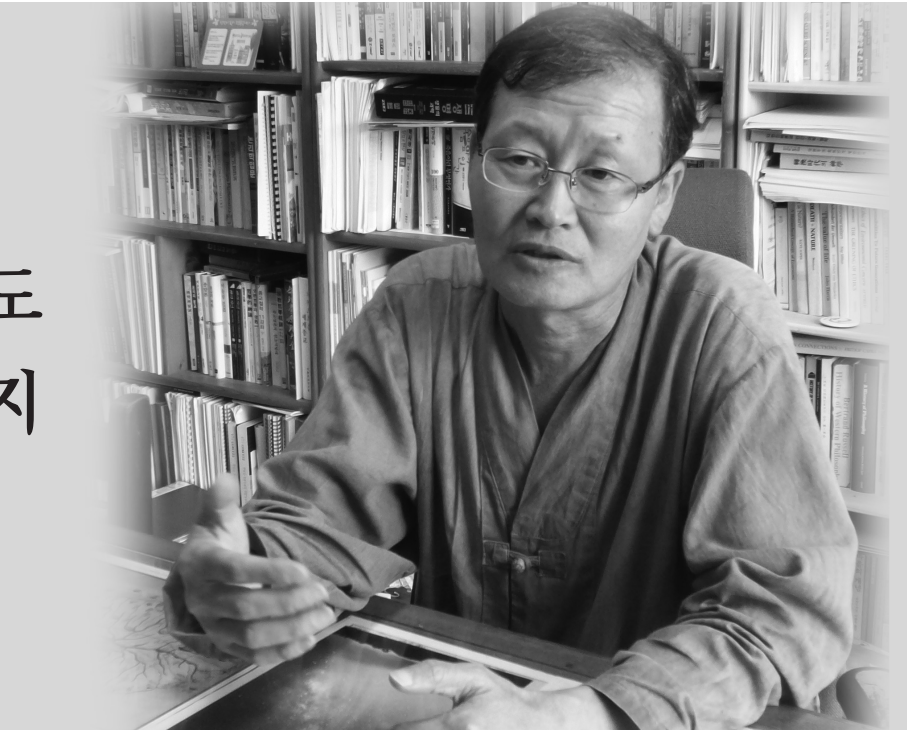
사회의 공익적 이익을 배제하고 개인의 이기주의로 환경을 소비하면 사과나무 한 그루도 안 남을 지도 모른다.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소 1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1마리 씩 키우면 딱 적당한죠.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소를 몇 마리 더 키우면 나에게도 그 만큼의 이득이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1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땅은 황폐화되고 남은 건 없죠.

공유지에서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공동체가 파멸되고 그로인해 그 개인까지도 파멸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환경도 이와 똑같은 거죠.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해당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어느 지역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면 대기가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며, 방사능이 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나라 모두 자국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기가 오염됐다 해도 경제적 이득은 자기 나라가 얻는데 손해는 세 나라가 얻어 갖는다. 그러면 세 나라 모두 개발 중심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모두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협약을 맺어 어느 선까지 반드시 지켜야하는 서로의 약속이 필요해요.

◇어떤 환경적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 개체가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환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보자면, 산불이 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꺼야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해 생겨난 산불일 수도 있고,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기가 건조하면 나뭇가지의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일어나 산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자연인데 그대로 놔둬야 하지 않느냐, 산불이 일어나서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이득 보는 것도 있거든



요. 예를 들어서 껌질이 아주 두꺼운 씨앗 같은 경우 보통에는 씨를 못 틔우다가 산불이 오면 껌질이 벗겨져 씨를 틔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입장에서는 산불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보전이나 보호 관리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연계가 순환할 때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도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건 사실은 없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발전과 성장은 환경에 반비례했다고 볼 수 있다. 성장과 환경보전은 양립할 수 있는 요소인가?

환경과 경제 성장은 반비례한다고 보지만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어요. 초기에는 급속하게 환경이 파괴되죠. 근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신들이 파괴해 오염된 생태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죠. 이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생태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제3세계 후진국의 환경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젓가락을 만드는 나무들은 일본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올 겁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나무를 자연을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환경을 지킨 거죠.

경제와 생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economy, ecology. 두 단어 모두 eco-를 접두사로 사용하죠. eco는 살림살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경제가 집안 살림살이를 뜻하는 거라면 ecology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생태계 나아가 지구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죠.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따르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 합리성보다 상위의 가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나?

효율성의 개념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속도 중심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 했거든요. 빨리빨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을 더 빨리 고갈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더 많은 폐기물을 빨리 양산하는 거죠. 빨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성과는 반대의 길이죠.

그래서 효율성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더 적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생활양식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죠. 그 합리성의 기준을 속도에서 더 적은 엔트로피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상당수의 대중들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상식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실생활에는 환경을 하위의 가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와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제가 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왜 사람들이 선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선을 해하지 않고, 악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악을 행할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철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제 물음과 질문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무지에 의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알면서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 개인이 같게 되는 이익이 사회적 피해와 대비했을 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사회와 집단에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지민 기자

오염과 파괴의 블랙홀을 넘어 푸른 이어도로 귀환하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

국내 포털이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 정의 내리는 ‘환경’에 대한 지리멸렬한 해석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쉽게 다가오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Interstellar)’입니다.

극심한 산소부족과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대지 위에서 다른 모든 작물은 멸종되고 옥수수도 겨우 삶을 연명하는 인류.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은 나사(NASA)의 행성탐사선을 타고 인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납니다.

“지구의 끝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The end of earth will not be the end of us)”라는 이 멋진 대사는 비슷한 발음의 시적 표현으로는 기억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지구의 끝은 그냥 인류의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원율을 통해 시간여행이 가능하고 블랙홀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인류는 겨우 달 착륙에 성공한 정도입니다.

인터스텔라의 지구는 질소로 호흡하며 무한히 번식하는 병충해와 엄청난 황사로 인해 식물들이 멸종하고 다른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파괴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어떤 것들이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환경보전을 가로 막고 있는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원인과 원인의 주체를 둘러싼 수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계들이 얽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괴로 대변되는 핵을 에너지 전환을 통해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발전소 건설은 되돌리기 힘든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이후 더 이상 건설되지 못하다가 2005년 기후문제와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선율꽃자왈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석채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악순환”

“환경보호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

유가폭등을 계기로 다시 건설되기 시작한 핵발전소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이 다시 일깨워져,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를 폐기하거나 적어도 신규허가를 중단하거나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도 모자라 해외에 수출하고 수명이 다 된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수명 30년에 불과한 1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 조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됩니다.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전기가 남아돈다며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핵발전은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이나 계절적인 잉여전력이 발생됩니다. 전력 수요 때문에 핵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에 의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풍부한 값싼 에너지’로 홍보하면서, 기업에 엄청난게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핵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전력수요부터



지하수 취수량 중산에 반대해 운동가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줄이는 에너지소비절약 운동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반핵운동은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당장 핵발전소를 멈추라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친환경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한다는 국가적인 환경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비스타일을 바꾸는 시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저절로 핵발전소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자족적인 자구책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4대강 사업추진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당 등 전 국민적인 저항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이나 부산 경남의 식수오

염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았더라면 건설비용 22조원과 추가 관리보수비용으로 추정되는 84조원의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주도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꽃자왈은 단순한 숲, 답봉지대가 아닙니다. 투수성이 좋은 암석지대 위 숲으로서, 빗물이 스며들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드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제주도정 당국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수백만평에 이르는 꽃자왈지대를 파괴하는 행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서광리 중간간 주변에 대규모 카지노 도박장과 숙박시설을 건설하도록 허가해줬고 대정읍 신평리와 구억리 일대 꽃자왈을 파헤쳐 도민들의 교육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리법인학교와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제주도민의 뜻과 관계 없이 JDC와 제주도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파헤치고 대기업과 중국자본에게 영구히 팔아 넘겼습니다. 최근 제주도정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형 숙박업소 건립에 들어가는 골재수급을 위해 탐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바로 밑에 위치한 선율꽃자왈 지역까지 토석채취장으로 허가해 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켜 우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제주의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오젠거리 탐방

제주의 차이나 타운 ‘바오젠거리’

거리엔 온통 중국어 간판들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거리인지...

제주를 향한 중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류 열풍 덕분일까. 신(新)제주 시내 곳곳에서 연예인 ‘이민호’와 ‘김수현’의 마네킨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추측의 근거로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미소는 그리운 입과 재회한 듯 환했다. 삼삼오오 모인 단체 중국 관광객들 중 문신을 한 남성이 왓자지껄 떠들며 손가락으로 어느 장소를 가리킨다. 아마 동료들에게 함께 가져며 의견을 제시한 듯 보였다. 본래 성격이 급한 걸까, 빠르게 이동하는 중국인 무리 속에 슬그머니 몸을 맡긴 채 움직였다.

그들’이 직원 1만1000명을 제주로 관광을 보냈다. 이들로 인해 중국에서 입소문이 돌은 듯 수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는 생각지 못한 관광사업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이 거리를 ‘바오젠거리’로

》》

‘로데오 거리’에서 ‘바오젠 거리’로 변모

거리는 어느새 중국인들로 몸살을 앓고...

◇이 곳은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 어렸을 때 봤던 ‘소림 축구’에서 들려오던 언어가 거리 속에서 활보했다. 확실한 사실은 내가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한국어와 영어는 아니었다. 바로 중국어다. 하지만 나만 소외된 것일까. 중국어는 거리의 공통 언어인 듯 사람들은 어색함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바오젠거리’다. 기존에는 제주 로데오 거리였다.

2011년 9월, 중국 건강용품기업 ‘바오젠

명명했다. 거리에는 육안으로도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훨씬 많아 보였다. 자세한 통계로는 차이가 얼마나 극명할까.

◇거리의 상점가, 요우커 입맛 맞춘다.

정체불명의 언어는 바오젠 고객들의 심(心)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곳곳에서 사람들을 호객하는 행위가 이뤄졌다. 손님은 역시 왕이었던 것일까. 왕들을 모시기 위한 점원들의 행동은 안타까움과 열정을 동시에

자아냈다. 지금까지 봐왔던 호객행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중국 전통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다. 회전 식탁을 둘러가며 친구들과 왓자지껄 떠들었던 추억에 젖었다.

바오젠거리에서 중국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다. 없었다. 정말 없었다.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나 술집, 찻집들이 거리에서 주를 이뤘다. 단순히 계시돼 있는 메뉴판과 점

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어일 뿐이었다. ‘차이나타운’은 중국 고유 전통을 부각시켰으나 ‘바오젠거리’는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 조성된 것처럼 느껴졌다. 중국이라는 공통의 범주 속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로 나뉘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다.

◇언제 열리는 걸까요, ‘바오젠 버스킹’ 생소한 무대 세트장이 거리에 설치돼 있



바오젠 거리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국어로 표시된 간판을 가르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소설 속으로의 여행 - <신진오 저>, ‘무녀굴’의 김녕사굴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용서

여름의 끝물, 더위에 질릴대로 질린 당신, 그 공포여행으로 초대한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끝물 더위에 지쳐 있는 당신 앞에 공포소설 한 권이 놓여 있다. 자, 시원한 공포체험을 같이 하고 싶다면 책을 펼쳐 보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차츰 식어갈 것이다. 김녕사굴에 얹힌 무녀 이야기, 금주는 과연 무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퇴마사 진명과 함께 귀신도 퇴치하고 더위도 사냥하러 김녕사굴로 떠나보자.

◇‘무녀굴’ 줄거리

제주에서 행방불명이 된 매드맥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 진명의 대학선배이자 금주의 남편 주영의 의문의 죽음. 퇴마사인 진명은 이 의문의 사건들이 모두 무당귀신의 저주 때문임을 알게 되고, 진명과 금주는 저주를 풀기 위해 무당이 묻혀있는 김녕사굴로 향하게 된다.

◇김녕사굴 설화

중종10년, 제주의 한 동굴에 수십 척이 넘는 큰 구렁이가 은거했다. 오래 전부터 바람과 비를 휘둘러 사람들을 괴롭혔기에, 마을에선 해마다 열다섯 살이 된 처녀를 제물로 바쳐 화를 달랬다. 신임 제주 판관 서련이 날

랜 장사들을 대동하고 행차해 구렁이를 죽였으나 돌아오는 길에 붉은 기운에 변을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녕사굴, 도대체 어디에

또 다시 이곳, 시외버스터미널.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터미널에 들어서니 출지에 관광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701번 버스에 올랐다. 가을이 아닌 것 같은 무더운 날씨, 갓길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날씨는 더위도 가을은 서서히 오고 있는 모양이다. 공포소설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라 그런지 긴장이 됐다. 만장굴 입구에 내리니 만장굴까지 2.5km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같은 버스에서 내린 캄보디아사람과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 동굴은 폐쇄해서 못 들어갈 텐데...”, “동굴 입구만이라도 찍으려고요” 만장굴 입구에서 차로 3분을 달려 도착했다.

#입구 앞에는 ‘김녕굴’이라고 쓰여진 나무 표지판과 안내문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중략)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남이 입구 역할을 대신했다. 정남 3개가 모두 울려져 있었다.

김녕사굴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이 곳은 관람할 수 없습니다. (동굴 폐쇄되었습니다.)’ 휘날려 쓴 글씨가 보였다. 입구라도 찍을 수 있을까해서 조심스럽게 발길

을 옮겼다. 김녕사굴 설화에 나오는 서련판관의 사적비가 세워져 있었다. 으스스한 기분이 흠 끼쳐왔다. 정주석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소설에 나온 정남은 없었다. 정주석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니 발이 있었다. 상자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벌들이 상자에 달라 붙어 있어 혹여나 벌에 쏘일까 황급히 발을 돌렸다. 나오는 길에 풀밭에 쓰러져 있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곳은 양봉장입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동굴 입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도대체 동굴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념을 하고 만장굴로 향했다.

◇칠전팔기 다시 김녕사굴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 문의 전화를 했다. “입구만이라도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보니 동굴이 폐쇄되어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만장굴과 김녕굴은 원래 하나의 동굴이었으니 만장굴이라고 가보자.”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냉기에 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 책 내용 중 p.318

만장굴로 들어섰다. 계단을 내려가자 한기가 느껴졌다. 땀을 무지 흘렸는데 만장굴 안으로 들어가니 이내 땀이 식고 추위가 밀려왔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관광지라 김녕사굴과는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동굴 안의

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엔 충분한 크기였다. 공연의 장르와 향후 일정이 궁금했다. 카페 ‘망고식스’의 야외 발코니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어느 여고생에게 물었다. 반가운 답변을 받았다. 거리에서 주기적으로 공연이 열린다고 말했다. 자신도 여름방학동안 공연을 무려 3번이나 관람했다고 밝혔다. 평화통일에 관한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음악회들도 감상하기에 매우 좋았다고 덧붙였다. 세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7월에 열렸던 ‘바오젠 콘서트’의 정보가 게시된 표지판이 보였다. 가을에 열리는 공연 일정을 알고 싶어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나와 있지 않았다. 포털사이트에 ‘바오젠거리’라고 검색하자 해당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반가운 마음으로 공연 일정을 확인했으나 전혀 나와있지 않았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동 주민센터로 통화를 걸었다. 센터 소속 직원은 “즉흥적으로 공연하는 버스킹을 모티브로 삼아 체계적인 일정을 게시하지는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학생에게 표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친절했던 직원의 태도에 오히려 미안했다. 그러나 공연을 보고 싶지만 일정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상기한 후 직원으로부터 일정표 게시의 약속을 받아냈다.

◇거리가 앓고 있는 남모르는 지병

바우젠 거리 중간에 정말 특이한 별금 부와 경고문이 있다. 경고문에는 △무단행단=2만원 △쓰레기 투척=5만원 △담배꽂초·검투척=3만원 △침 뱉기=3만원 △노상방뇨=5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타 경고문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나, 이 게시판은 중국어도 함께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쓴웃음을 지으며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 문의했다. 해당 경관은 “깨끗한 바오젠거리 관광을 돕기 위해 이 경고물을 설치했다”며 “특히 바오젠은 중국인 유동인구가 절대적으로 높아 중국어도 함께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해 보였다. ‘바우젠거리’의 또다른 이름은 “차 없는 거리”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칠성통’도 이 거리를 모티브로 삼았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상점들이 많아 물품을 조달하는 큰 트럭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바오젠거리’의 세입자 문제를 다뤘다. 실제 우리 대학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국인들의 도내 토지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기하게 많은 분포가 이뤄져 있어 바오젠거리의 세입자 문제는 당연하게 파생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바오젠거리는 정말 ‘중국인’만을 위한 거리다. 중국어로 적혀 있는 간판과 제품 설명들은 신비함과 함께 쓸쓸함을 내게 선사했다. 본래 신시가지의 문화를 도맡던 거리가

>> 김태일 교수 인터뷰

“중국인들의 투자 위해 땅만 빌려주는 제주도”



‘바오젠 거리’를 취재하며 문득 궁금해진 것이 있다. 바로 중국 자본이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생됐다. 특히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이며 일부는 제주도 땅을 ‘돈’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 기성언론에서도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유 토지도 비례하게 증가했다며 자주 보도된 바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실태를 분석한 우리 대학 김태일(건축학부) 교수를 찾았다.

◇중국인의 토지 매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 된지 벌써 10년차다. 그 전에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는가? 아니다. 확실히 국제화는 관광 사업 발전의 첫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2010년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다. 이 제도 덕분에 우리 제주도가 중국인의 손아귀로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참고해 국적별로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했다. 2004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소유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중국의 토지소유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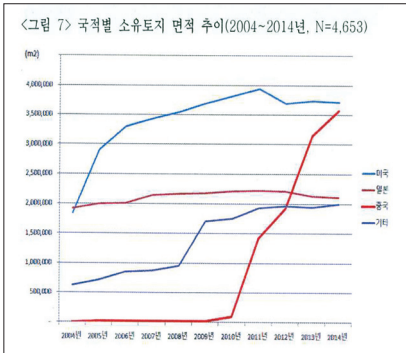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지구의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거주 비자 영주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0만달러, 한국 돈으로 약 5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땅 면적과 상관없이 시가 기준(5억원)에만 맞는다면 자격이 충분하다.

◇외국자본으로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우커를 상대하기 위한 거리로 변질된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로드샵이나 패션 브랜드 상점들에는 중국인 점원들도 종종 있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 개발도시로 탈바꿈 돼 관광사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제주 전통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향간에는 ‘차이나 머니’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있지 않는가
망청한 소리다. 제주도민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제도다. 물론, 처음 당시 도지사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국에서 GRDP(지역내총생산)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 만약 국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자리가 파생돼 고용창출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의 실태는 어떤가. 대다수 중국인이 JDC나 제주도민이 판매하는 땅을 직접 구매하고 개발한다. 땅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중국인들이 투자한다. 그 후 발생되는 이익은 모두 중국인에게 유입된다. 우리는 바보같이 땅만 빌려주는 꼴이 된 것이다.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의 편한 휴식자리를 책임지는 숙박시설도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제주는 정작 돈을 벌지 못한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투자를 위해 직접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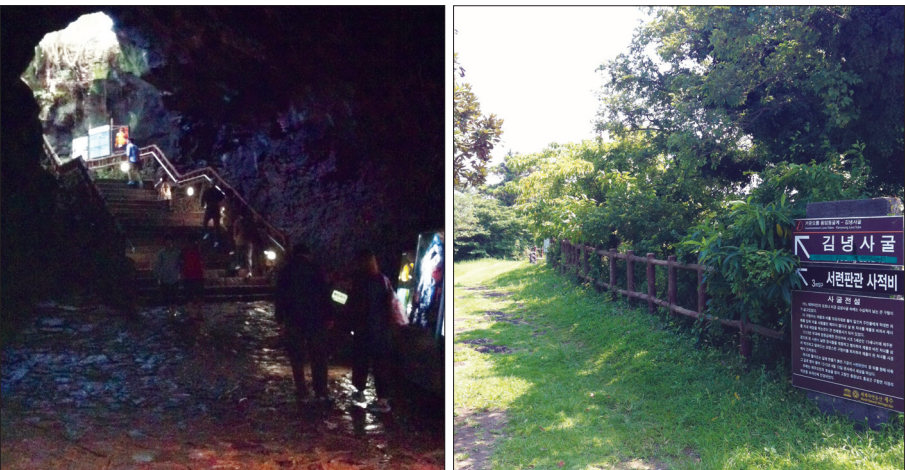
백승규 기자



2004년부터 10년간 국적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의 토지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김태일 교수 논문 중 발췌>

장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래도 심란했다. 직접 느끼지 않고 서야 도민들의 안타까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계속된 취재로 목이 탔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근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원한 이온음료를 구매하기로 다짐한 뒤 문을 열었다.
“Ni-hao!”. 점원이 외쳤다.

백승규 기자



수풀이 입구를 막아버린 무녀의 저주가 시작된 김녕사굴. 김녕굴과 달리 사람이 북적이는 만장굴. 김녕사굴로 가는 길 (사진 위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냉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사굴 근처엔 잡풀과 잔가지들이 겹겹이 덮여 있어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연출했다. -책 내용 중 p.318

다시 찾았던 김녕사굴 표지판 앞. 꼼꼼히

살펴보니 정주석 하나가 풀숲에 가려 있었다. 정주석 오른쪽은 수풀로 우거진 곳이었다. 풀들이 저렇게 무성하게 우거진 곳에 동굴이 있을까 의심하며 한 발짝씩 수풀을 헤쳐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첩로 된 문이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저 글을 읽으며 영혼과 증오는 참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증오는 참으로 무서운 감정이라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영혼 속에 남을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웠는가. 당신도 괴롭지 않았는가. 결국 미움 더 나아가 증오라는 것은 그 감정에 휘말려 자신 또한 피해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용서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더 활기찬 내일을 살아갈 ‘나’를 위해 타인의 실수를 한 번은 눈감아 주자.

김정희 기자

교수시론



방 호 진
경영학과 교수

“

삶의 이정표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꿈임없이 나아가는

하고잡이가 됐으면 한다

”

대학생들이 취업 후 당면하는 고민 중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일은 결국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일과 삶의 균형, 특히 충실한 삶의 영위는 중요한 문제다. 일로 인해 삶이 제약된다면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상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성장과 자아실현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과 삶의 균형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들 중 야근과 밤샘을 밥 먹듯이 하면서 높은 성과를 위해 매진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갑 같은 정치퇴근 이후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주말의 여가를 이용해 취미생활을 갖는 사람도 많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자는 후자에 대해 ‘레저형 직장인’이라고 비아냥거리고, 후자는 전자에 대해 ‘회사노예’라고 폄하한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까?

올해 3월 끝에 그리던 제주대의 교원으로 부임하기 전, 한창 인기를 끌던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해 CJ tvN의 이명환 CP와 나눴던 대

화가 인상 깊었다. “처음 할아버지들 몇 명을 데리고 5박6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을 10회짜리 예능 프로로 만들겠다는 기획서를 접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능이 될 수 없는 소제였지요. 그러나 그 기획안이 나영석PD의 아이디어임을 알게 됐고, 그러면 당연히 된다고 믿고 진행했습니다. 나영석PD는 ‘하고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환 CP의 말이다.

본디 하고잡이라는 표현은 뭐든 하고 싶어하고 항상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CJ에서는 자신의 일에 미쳐서 집중하는 핵심인재의 표현으로 쓰고 있다. 특별한 재밌거리가 없을 것 같은 여행 과정에서 사소한 소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한 회 분량의 재미있는 예능 방송으로 둔갑시키는 나영석PD의 집요함은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실제로 그는 저녁과 주말 회사를 떠나 있을 때도 주변의 소소한 일들에서 방송거리를 찾아내기 위해 24시간 신경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런 나영석PD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고 있는나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

기자수첩



부 찬 우
대학부장

우리의 시간은 흐르는데, 대학의 시계만은 거꾸로 돌아 다시 과거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을 향한 갈바람은 그칠 겨를이 없다. 교육부는 8월 31일,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교 조개혁명가 결과를 발표했다. 등급별로 4년제 대학에선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 등이 평가 결과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줄여야만 한다.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에 공을 기울여 왔던 제주대도 B등급에 포함돼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원감축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중 D, 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이듬해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E등급 대학의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 1유형도 받을 수 없다.

말이 권고지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재정지원이라는 무기를 통해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의 높은 정부 재정 의존도를 약용하는 처사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학만이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 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목을 죄는 정책에는 최근 논란을 야기했던 총장직선제 폐지도 한 몫을 거두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작된 직선제를 정부는 선거 과열과 금품수수, 교수사회 파벌 조성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직선제의 폐지와 간선제의 시행을 추진했다. 직선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부의 의도에 따라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해도 교육부의 잇따른 퇴짜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총장 임용 제정을 거부한 바 있다. 정부 입맛에 맞

지 않는 후보들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늪양상을 피하긴 어렵다. 지금 정부는 돈을 가지고서 대학들을 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를 맘을 잘 들도록 대학에 예산이라는 미끼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의도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는 바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다소 감압적이고 올드하다.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다. 강화물(재정지원)만을 이용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 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 정부는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 하지 말고 자율과 자치를 먹고 자라는 대학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한 존중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학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비록 돌고 돌아서 힘겹게 그 해답을 찾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독자기고

잊혀지지 않을 제주의 추억

박 병 선
의학전문대학원 4



겨울, 눈 덮힌 거리, 불 꺼진 기숙사. 2012년 2월 다시 한 번 찾게 된 캠퍼스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어서 그런지 대학 신입 때 생각했었던 낭만보다는 캠퍼스에 다시 돌아온 복학생의 마음으로 제주대학교에 들어서게 됐다. 다시 시작한다는 들뜬 마음도 잠시 지나고 꽃샘추위에 손발이 얼어붙어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던 해부학실습으로 첫 학기가 시작됐다. 의전원에서 한 달이면 일 년이 늘는다고 했었던 선배들의 말처럼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삼주일 간격으로 지루하게 이어졌던 시험들의 계단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졸업이라는 게 다가왔다.

다른 과 학생들과는 달리 의학과에는 학년마다 매년 어느 정도는 유급생이 생겨났기에 다들 유급을 면하기 위해 학교 축제 때도 도서관을 지켜야 했었고, 시험 전날이면 매번 포박포박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그렇게 4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돌아해보면 제주대에서의 추억이란 것이 한 자락도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알아듣지 못 하는 수업을 듣거나, 병원에서 발이 통통 부어서 실습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무렵이면 나직한 산등성이 사이로 서쪽하늘에서는 혈관보다 더 붉게 노을이 타올랐다. 그리고 가끔씩 먹먹한 가

슴으로 찾아갔었던 늦은 밤 바닷가에서는 촘촘히 하늘에 박힌 작은 별들처럼 검은 바다를 밝히던 바닷가의 한지잡이 배들이 기억난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던 제주도에서 맛있는 태풍과 장대비에 고달픈 사연도 많았지만, 한 번씩 그렇게 몰아칠 때마다 두려움 반 놀라움 반으로 보냈던 하루도 기억난다.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산천단으로 올라가던 차들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의 모습, 그리고 열마 지나지 않아 하얗게 함박눈으로 치장한 캠퍼스.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날이면 이따금 깜짝 놀라 뛰어 가던 사슴들. 이런 추억들을 간직한 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제주도를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제주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 어색했던 제주도 사투리들도 익숙해질 즈음, 하나 둘 제주도의 아름다운 길들을 알아갈 무렵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누군가에게 제주도는 고향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일 수 있다. 내게 제주도는 한편으로 도전의 무대이자 여정 길의 광야 같은 곳이었다. 곧 제주도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지만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이곳의 추억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핸드폰 구매를 잘 하려면

김 상 규
정치외교학과 1



이번 여름 방학 때 S통신사에서 핸드폰을 파는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보다는 아니지만 요즘도 폰과 관련한 사기들이 많다. 그래서 학우들을 위해 S사의 기준으로 폰 구입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통신사를 자주 옮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사를 옮기면 지원금을 많이 주고 위약금도 대납해준다고 하면서 고객들을 유지하는 전략이 성행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에는 통신사 3사 모두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 굳이 통신사를 옮겨도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하나의 통신사를 오래 쓰게 되면 20~50% 정도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족들까지 같은 통신사를 쓰면 인터넷할인, 온 가족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꼭 요금제를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요즘은 단통법 시행 전처럼 폰 구입시 첫 몇 개월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된다고 해서 제주도는 고향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일 수 있다. 내게 제주도는 한편으로 도전의 무대이자 여정 길의 광야 같은 곳이었다. 곧 제주도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지만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이곳의 추억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면 핸드폰 기기 값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게 돼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만약 노인들께서 폰을 사리 가신다고 하면 꼭 같이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S사에서는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이 조회가 되니 학우들은 그것을 참고해 꼭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 하시길 바란다. 세 번째로 부가서비스를 잘 봐야 한다. 핸드폰을 살 때는 꼭 필요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면 가입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다만 부가서비스 1~3개월만 사용하고 기기값에서 일정량의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기 값에서 일정량의 할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2~3만원 정도 싼 경우가 있다. 여러 경우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셔서 기기 값 할인을 받고 1~3개월 후 114에 전화해서 간편하게 해지하면 된다. 마지막은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핸드폰은 대체적으로 구입 후 최소 2년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된다. 귀찮다고 아무런 정보 없이 구매하게 되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핸드폰을 사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 꼭 판매원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발품도 팔면서 사는 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야기할 것이다. 방향 중 한 달만 일한 것이라서 실제와는 일부 다를 수도 모자를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핸드폰 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설

총장직선제로 대학민주화 회복해야

지난 8월 17일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고 교수의 충격적인 죽음은 하염없이 뿔뿔잡힐하는 이 시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에 경종을 울렸다. 고 교수의 투신은 총장직선제 사수를 위한 부산대 교수회장의 단식투쟁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둘러싸고 4년 동안 진통을 겪어오던 터였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책임은 부산대의 대학당국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책임은 교육부가 적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왔다.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립대를 압박했다. 결국 대학들은 교육부에 굴복하고 말았다. 부산대도 굴복 직전이었다. 사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다. 정권의 대학 통제 장치였던 총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일은 대학민주화의 핵심이었다. 물론 총장직선제는 그동안 일부 폐단을 드러냈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었다.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강요는 헌법에 담긴 대학 자율성이라는 이념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라는 술책이 결국 이변의 죽음을 부른 셈이다.

고 교수의 죽음 앞에 대학인 모두는 속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이상의 어떤 노력을 벌였던가. 대학마다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았다면 교육부의 술책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모든 대학 총장들이, 아니면 국립대 총장들이 총장직선제 사수를 결의했다면 재정지원이 교육부의 무기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장협의회에서는 바로 그런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교수회도 제 역할을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며 너무 현실에 안주해버렸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교수회 회원들인 개별 교수들도 각성해야 마땅하다. 교육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성과급을 조금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 학내에서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던가. 정작 맞서야 할 대상은 애써 외면하고, 눈앞의 불이익에 대해서만 분개하면서, 동지여야 할 교수들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던가. 최고 지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는지 저마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고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제주대 교수회가 포함된 전국거점국립대 교수회 연합회는 총장간선제 폐지에 힘을 쏟기로 결의했다. 이제 대학민주화의 뜻은 다시 울려졌다. 다가오는 2017년 제주대 총장선거는 반드시 직선제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의 반

시간의 반(半)이라는 시점은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할 수도 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중년으로 넘어가는 40세 전후, 즉 인생의 반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었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들의 남은 40여년은 살아왔던 40년보다는 체력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다 젊게 살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도 남아있는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있었지만, 삶의 반이 지났다는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할 것이며, 성공 여부를 떠나 나이 들어가는 남은 반평생은 때릴 리두 쫓기는 삶이 될 수도 있다. 반면, 학교생활의 반을 넘겨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는 초등학생들은 많이지는 공부량에 불만을 갖겠지만 나뉠 것다는 생각이 어깨를 으쓱거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시간의 반은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젊은 날의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은 젊은 날들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이 젊은 날의 반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을 젊은 날의 반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첫사랑과의 빠지던 이별을 경험한 후 불현듯 거울속에서 초체한 자신을 봤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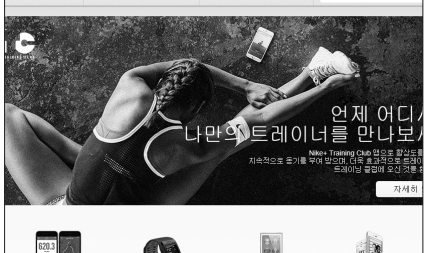
젊은 날의 반을 소진한 공허함에 빠지게 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남아있는 젊은 날의 반은 분명 더 경험하고, 더 배우고, 더 사랑하며 덜 실패할 수 있는 희망적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반이라는 의미는 분명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순간이다. 새해, 입학, 새학년, 새학기 등 ‘시간의 시작’이 갖는 의미 속에서 흔히 희망과 계획, 힘찬 도전 등을 찾곤 한다. 그러나, 인생의 반, 학교생활의 반, 일년의 반, 매달 15일 그리고 하루의 반 등 시간의 반은 과거를 돌아보고 남아있는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인 것 같다. 이제 2015년도 반을 넘겨 1/3만을 남겨 놓고 있다. 어느덧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사년의 반을 의미하는 2학기가 되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5학년의 나머지 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점이 그저 우리 젊은 날에 있어서는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지난 1학기의 시간이 준 경험, 배움, 성숙함을 토대로 나머지 시간의 반을 계획하고 의미있게 꾸려나가기 할 것이다. 2015학년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후회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남아 있는 半에 대한 희망과 발전의 기대가 아닐까 말해본다.



뇌.색.남의 시사용어
게이미피케이션

“하루는 모두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은 모두가 게임을 해야 한다” 2500여 년 전 리디아 왕국의 국가 정책 중 하나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게임의 요소들이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재미를 기반으로 한 펀웨어(funware)나 재미공학(fungineering)에 기반을 두고 게임 외적인 분야에 게임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게임의 순기능을 일상에 활용하려는 가능성 게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게임,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임 등 ‘게임 같은’, ‘게임과 관련 있는’, ‘게임처럼 재미있는’, ‘게임적 사고’를 총망라하는 개념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몰입할 수 있게 비게임적 맥락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실제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나 ‘슈퍼스타K’ 등의 경쟁 프로그램, ‘런닝맨’, ‘무한도전’ 등은 게임적 요소의 사용을 여실히 보여 준다. 네이바나 다음 같은 검색 포털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SNS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게임 메커니즘 요소인 ‘리더보드(랭킹)’, 포인트나 배지 등이 자연스레 탑재된 채 게임화가 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특정 행동인 ‘임무’와 이에 따른 ‘보상’은 게임의 주요한 기법이다. 이 보상 전

략은 사람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해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미국 IT분야 리서치 업체 가트너가 선정한 ‘최고의 떠오르는 신기술’에 게이미피케이션이 꼽혔다. 가트너는 2014년까지 전 세계 2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 중 70%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15년까지 50% 이상의 조직과 기업들이 프로세스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게임화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최신 유행 트렌드 및 신기술과 융합해 오픈 이노베이션 촉발에 따른 경영 혁신, 종업원 행동 및 성과 개선, 질 높은 교육의 민주화, 자발적 소비 참여 플랫폼 출현 및 개개인의 맞춤형 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늦기 전에 게이미피케이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부찬우 기자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나이키 플러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운동에 게임적 요소를 도입해 재미를 더했다.

» 셰프들과 함께하는 서문시장 간식 만들기

오 나의 셰프님 서문시장을 부탁해

대한민국은 지금 셰프들의 시대다. 전 국민을 요리 사랑에 푹 빠지게 한 쿡방(‘쿡방’과 ‘방송’의 합성어, 요리하는 방송)에서 시작해 연일 유명 셰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까지 출현해 브라운관을 장악하고 있다. “요리 잘하는 남자가 세시하다!” 일명 ‘요섹남’(요리 잘하는 세시한 남자)이 대세인 오늘, 케이블채널 올리브TV의 ‘올리브쇼’ 속 스타 셰프들이 9월 4일, 제주 서문시장에 뒀다. ‘제주 달리셔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제주 특산물을 조명하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제주의 향토음식, 일명 ‘J(jeju)푸드’를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셰프들이 함께 하는 ‘서문시장 간식 만들기’의 무대로 떠나보자. <편집자 주>

◇최고의 셰프들이 모이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러나 왠지 유난히 그 발걸음이 더 경쾌하고 미묘한 긴장감도 보였다. 9월 4일 오후 1시, 서문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셰프들의 세기의 요리 대결이 열렸기 때문이다.

“3만원으로 당신의 일주일 식단을 책임집니다!”라는 TV 속 말이 서문시장에서 울려 퍼졌다. ‘올리브쇼’ 속 스타 셰프 2명의 레시피 대결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준비를 끝마쳤다. 오늘 펼쳐질 특별한 대결은 셰프들이 직접 개발한, 황요한 셰프의 ‘흑돼지 비빔면’과 남성렬 셰프의 ‘한라봉 닭강정’이다. 요리를 위한 셰프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다. 각자 요리에 쓸 식재료를 시장 안에서 구입하고 기본적인 손질과 함께 모든 세팅이 끝났다.

이어서 오프닝이 시작됐다. 두 셰프 외에 개그우먼 김영희와 또 다른 스타 셰프 최현석 셰프가 오프닝을 함께 했다. “프로그램의 핏(fit)을 위해 나왔다”는 최현석 셰프만의 특유의 허세와 유머스러움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었다.

남성렬 셰프는 “재료가 좋기에 음식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음식의 맛이 없다면 셰프가 아니다”라고 제주 특산물에 대한 칭찬과 함께 요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오프닝 내내 요리를 앞둔 두 셰프 간의 승리를 향한 기싸움이 남달랐다. 장난 섞인, 서로의 요리에 대한 견제들이 요리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셰프들의 레시피 대결

웃는 모습이 호쾌한 황요한 셰프는 평소 그의 얼굴만큼이나 스위트한 요리와 호불호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맛의 요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프렌치 양식 요리를 전공하고 에릭스 뉴욕 스테



황요한 셰프와 남성렬 셰프가 서문시장에서 요리대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두 셰프는 제주의 특산물을 이용해 ‘흑돼지 비빔면’과 ‘한라봉 닭강정’을 만들었다.

이크 하우스를 운영하는 오너 셰프답게 이번 요리에서도 제주의 흑돼지를 이용한 퓨전 파스타 요리를 준비했다.

먼저 요리를 시작한 황 셰프는 독특하게 일반적으로 구워서 먹지 않는 앞다리 살을 이용했다. 앞다리 살을 후추와 소금을 이용해 간을 하고서 불에 굽기 시작했다. 이어 고기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된장을 이용한 특제 소스를 제작했다. 그리고 자칫 짭 수도 있는 된장의 맛을 잡아줄 계란과 우유를 통해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을 이끌어냈다. 정통 한식의 비빔면보단 퓨전 요리답게 독특한 재료와 요리법이 눈에 띄었다. 이내 시장 곳곳에 고기 냄새가 번져가며 셰프들의 요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황 셰프는 이번 요리의 승부수로 백김치를 꺼내들었다. 느끼한 맛을 잡고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백김치를 고명으로 사용했다. 완성된 요리의 비주얼은 살짝 걱정됐다. ‘도 한 것 같다’는 웃지 못 할 비주얼 평도 있었지만 셰프의 요리답게 반전의 맛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일 겁니다”라는 황 셰프의 말만 믿을 따름이다.

남성렬 셰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캐주얼 이탈리안 레스토랑 ‘데이블 스타’의 남 셰프는 평소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요리를 만들어 중독성이 있는 맛의 소

황요한 셰프, 앞다리 살과 된장 소스로 파스타 요리

남성렬 셰프, 한라봉 잼으로 오렌지 빛 닭강정 요리

제주 서문시장 간식으로 만들어질 두 셰프의 레시피

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그가 준비한 요리는 ‘한라봉 닭강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강정에 제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라봉 잼을 이용한 소스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했다.

남 셰프는 전분과 튀김가루를 이용해 닭을 튀긴 후 양파와 마늘과 함께 한라봉 잼을 이용해 풍미를 더한 특제 소스를 만들었다. 설탕을 쓰는 대신 한라봉 잼을 이용해 한라봉 특유의 향과 은은함이 강정에 배어 있을 것만 같았다. 이어 강정과 함께 맛을 더할 양파를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자극적인 맛을 조금은 잡아줘 단맛을 끌어냈다. 한라봉 껍질과 흑임자(검은깨) 등의 장식

을 마지막으로 요리를 끝마쳤다. 원래의 닭강정이 매콤 달콤한 붉은 색이었다면 남 셰프의 닭강정은 오렌지 빛의 상큼하고 건강한 닭강정의 느낌을 주었다.

◇요리 대결의 승자는

두 셰프의 열띤 요리가 끝나고 드디어 요리를 맛볼 기회가 주어졌다. 요리를 시식하고 더 맛있는 음식의 이름이 적힌 상자에 투표하는 것이었다. 요리를 시식하기 위한 사람들의 긴 줄서기가 시작됐다.

흑돼지 비빔면을 먹은 한 시식자는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이다. 간식을 넘어선 맛이다. 된장 소스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먹어보니 처음 보는 맛의 향연이다. 후추와 소

서문시장 그럴싸하쥬?

소박하지만 알찬, 제주의 도심에 위치한 서문공설시장. 상인들의 꾸준한 인심은 물론 즐길 거리, 먹을거리, 볼거리를 모두 누리보자.

<편집자 주>

◇축제의 서막이 열린다

첫날 4일, 사물놀이가 경쾌한 우리 가락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장 곳곳은 외국인들이 손수 만든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 등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 모두를 잡았다. 캐리커처와 의상, 복제품뿐만 아니라 타코야키와 케밥 등의 먹거리, 다양한 민족의 외국인들이 만든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시장 한구석의 ‘서문문화심판’에서는 다국적 퍼포먼스 그룹 살거스의 쇼와 앤돌핀을 돋우는 제주거지훈의 상큼한 노래, 파워풀한 난타 등 여러 볼거리들이 축제

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채웠다. 축제를 모르고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낯선 모습을 펼쳐내고 이내 곧 축제의 즐거움에 빠졌다.



쇼를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그룹 살거스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향연

이외에도 축제 곳곳, 아케이드 거리에서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했다. 먼저 양용진 제주향토요리연구가와 함께 제주의 문화가 담긴 전통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제주전통요리교실’이 이틀간 진행됐다. 빕떡, 지름떡, 돛과기적 등 제주만의 독특한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네 손으로 직접 물들어 보는, 제주의인 지혜가 담긴 ‘갈천 염색 체험’도 참가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색다른 체험과 두 손에 담긴 추억이 방문객들의 입고리를 올렸다.

예술시장인 ‘아트후마켓’도 열렸다. 패브릭 소품, 다육 식물, 사진엽서 등 개인판매자들이 직접 만든 소품이나 중고 물품 등이 시장 곳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서문시장 글로벌 페스티벌’, 상인들과 지역주민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어울리는 감동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했다.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는 이번 축제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우리를 반겨줄지 기대가 된다.



시장에서 폴리마켓을 운영하는 외국인

이틀날 5일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흠뻑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경연대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에 웃음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이어진 ‘서문통 이야기 길 투어’에서 시장이 위치한 서문통의 문화와 역사를 두루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꼬박꼬박 이야기

부찬우 기자

금만을 뿌려 만든 고기인데 정말 맛있었다. 앞다리살을 먹는 느낌보다 전혀 딱딱하지도 않고 삼겹살을 먹는 것처럼 부드러웠다”고 맛을 표현했다.

한라봉 닭강정을 먹은 시식자는 “제주도의 맛과 향이 느껴졌다. 한라봉의 향이 좋았고 닭고기의 감촉도 좋았다. 기존의 닭강정보다 느끼하지 않고 상큼하게 먹을 수 있었다. 간식이라는 주제에 제일 알맞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보였다”고 평을 했다.

대결 자체도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안겨 주었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점은 제주의 재료를 가지고 제주만의 레시피를 두

셰프가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가운데 제주에서 가장 약한 것을 꼽아보자면 먹거리를 꼽을 수 있다. 그런 제주에 두 셰프의 레시피는 새로운 활력이자 활로가 될 것이다. 두 셰프가 만든 비빔면과 닭강정의 레시피는 서문공설시장에 전달돼 앞으로 ‘서문시장 간식’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두 셰프의 요리는 서문시장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시장에 방문해 요리를 먹어보고 어느 요리가 더 맛있었는지 투표해보는 것을 어떨까? 대결의 승패를 비롯해 이번엔 다양한 방송은 오는 22일 올리브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찬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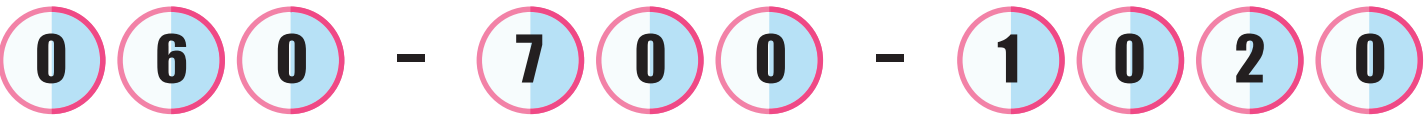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시오.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